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연락처)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박래군

(전화 3675-5363, 이메일 [redacted]@hanmir.com, 핸드폰 [redacted])

<보도자료>

1.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는 3월 5일 경기도 평택지청에 2월 28일 발생한 에바다 농아원생들에 의한 권오일 교사 등의 폭행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에바다 농아원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소재한 농아 아동 보호시설로 에바다복지회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농아원생들이 농성을 시작한 1996년 11월 이후 이 농아원은 구 비리재단의 마지막 근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이미 해고된 학교 직원등이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농아원생들을 배후 조정하며 이사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농아원생들은 학교 정문을 막고 이사들과 학교장, 신임 농아원장의 출입을 가로막아 왔으며, 최근에는 누구를 가릴 것도 없이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28일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등 결정'을 공시하던 과정에서 권오일 교사 등에게 전치 6주 이상의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2. 이런 농아원생들과 외부 세력의 시설의 무단 점거와 폭력 행사는 심각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수방관과 평택시청의 양비론, 경기도 교육청의 무사안일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선임된 이사회를 부정하고, 이전의 비리 세력이 농아원이라는 근거지를 활용하여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획책하고 있고, 이에 농아원생들을 불모로 잡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농아원생들과 외부 세력의 폭력은 경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기피하거나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원의 가처분결정문까지 내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점거하고 있는 농아원생들과 외부세력을 퇴거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3. 이에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연대회의는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평택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를 직접 경찰청장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폭행 당하고, 교사가 폭행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은 농아원생들의 폭력행위를 방관하는 것이며, 방조하는 행위이기도 합

니다. 경찰이 하루 빨리 각성하여 확실하게 범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집회 후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촉구서를 접수합니다. 이 수사촉구서는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는 폭력사태를 종식시킬 수 없기에 검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촉구서한은 3월 5일 에바다복지회 이사들의 이름으로 접수한 고발장을 뒤이은 것으로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소속의 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 촉구서한 3월 6일자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제출합니다.

5.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청을 항의방문합니다. 이 집회에는 이수호 전교조위원장, 김철준 에바다복지회 이사(변호사) 등이 참석하며, 연대회의 소속 10여개 단체 회원들이 참가합니다.

6. 에바다복지회는 이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경찰의 도움을 얻어 에바다학교와 에바다농아원 현장에 이사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입할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이런 이사회를 적극 지지하면서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도 경찰이 정당한 범집행을 기피할 경우 월드컵 기간까지의 장기적인 투쟁계획을 세워 실천할 것입니다.

7. 에바다는 이미 한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6년제 싸워서도 바꿀 수 없다면 전국의 모든 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바다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전국 시설을 민주화할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자료 1. 2월 28일 사건의 경과
2. 경찰청 항의서한
3. 수사 촉구서

<자료 1>

에바다 2월 28일 폭력사태 경과

<1월 14일> 1월 7일과 1월 10일에 이어서 이사들과 신입 변승일 농아원장, 김지원 학교장 등이 학교에 들어가려 했으나, 농아원생들과 외부 세력이 합세하여 정문을 봉쇄. 농아원 담을 넘어들어 갔던 농아인협회 회원들도 이들과 경찰에 의해 외부로 끌려나옴. 시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 점거세력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으며, 경찰은 불법세력의 퇴거를 요구하는 이사회의 요청은 거절하면서, 농아원생들과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문 앞을 차단함. 정문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귀성 이사회 대표이사 등이 농아원생들에게 폭행 당함. 농아원 측은 오히려 우리측에게 부상당했다면서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 우리 측에서도 중심적인 인물들을 고소해 놓은 상태임.

<1월 28일> 이사회는 직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양경수, 박미영, 임충섭을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 해임함.

<2월 8일> 양봉애에 대한 직원징계위를 양씨가 불참한 가운데 열어 양씨의 해임을 결정함. 이날 오후 4시 징계위원회를 송탄출장소에서 연다는 것을 안 농아원측은 오후 3시경부터 송탄출장소에서 집회(약 40명)를 가짐. 이날 이사회는 직원 양봉애와 교사 심기섭의 징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갖기로 했으나, 농아원생들의 난동으로 자리를 옮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양봉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함. 오후 4시 징계위원회 시간이 다가오자 이들은 송탄출장소에 난입하여 대표이사과 징계위원들에 대한 위협을 가함. 이 과정에서 경찰은 농아원생들이 집회 도중 출장소에 난입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이후에도 대표이사의 떠살을 잡고, 징계위원들을 위협하는 과정에도 방관함. 이사회에 항의로 경찰은 이들을 2층에서 1층으로 끌어내렸으나, 농아원생들은 출장소 1층 전시물을 파손하고, 경찰의 떠살을 잡고 핸드폰을 빼앗아 박살내는 등의 난동을 부렸으나 별 제지를 하지 못함. 장소를 옮기기 위해 김철준 이사의 차로 이동하는 징계위원들에게 이들은 다시 행패를 부렸으며, 차에 타고 출장소를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김이사의 차를 건어차는 등의 행패를 계속함.

<2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업무방해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이사회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사와 시설장의 출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파면된 직원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이사회가 신청한 가처분 요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결정함. 이로써 법적으로 이사회가 농아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획득하였으며, 불법점거와 폭력행위의 주범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이런 결정 자체를 농아원측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임.

<2월 14, 15일> 농아원측은 초등학교 1학년생을 비롯한 농아원생 전원과, 직원 전원 등을 총동원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가짐(약 100명, 1박2일). 이들은 에바다 비대위라는 집회를 갖고 이사회를 비난함. 이에 보건복지부는 김종인 전 이사장, 평택시 사회과장 등을 불러 집회측 농아원생 대표들과 면담하여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이사장이 농아원측과 이사회측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여 집회를 마무리하고 농아원생들은 내려감.

<2월 21일> 폭행을 일삼아왔던 심기섭 교사에 대한 교사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을 결정함.

<2월 25, 26일> 평택 교차로 신문에 왜곡 보도된 내용을 이유로 농아원생들은 김철준 변호사(현 에바다 이사)가 근무하는 수원 다산 법률사무소 앞 집회를 가짐. 집회 중에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 다수가 부상을 당하였고, 김변호사 사무실에 난입, 현관 유리창 등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림.

<2월 28일> 오후 4시경, 수원지법 평택지원 직원 2명이 에바다학교 정문에 도착하여 가치분 결정문을 공지하였으나, 곧 에바다 농아원생과 외부세력이 몰려나와 이 결정문을 뜯어던지며, 거칠게 항의. 이들은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권오일 교사와 이사회의 남정수 임서 사무국장에게 달려와 각각 10여분씩 20여명이 집단폭행함. 이들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하여 이들이 각각 전치 6주씩의 부상을 당하게 함. 권오일 교사는 이로 인해 현재 안중의 신라정형외과에 입원 치료중임.

<3월 4일> 개학일에 학교로 들어가려는 김지원 교장과 신연실 교사 등에 대해 농아원생들이 폭행을 가함.

<3월 5일> 에바다이사회는 이사 7명의 이름으로 2월 28일 폭행 가담자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제출함.

<자료 2>

에바다 폭력사태 방관하는 평택경찰서장 파면을 촉구하는 항의서한

경찰의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합니다.

지난 1996년 11월 27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에바다 농아원생들은 비리법인의 인권유린에 항의하여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배고프고 추워서 일어난 말 못하는 농아들에게 경찰은 권총을 들이대고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에 의해 각종 비리가 밝혀진 에바다 전 대표이사와 농아원장에 대해서도 축소 수사를 하여 결국 최소한의 형벌만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다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해온 에바다공대위와 연대회의 사람들에게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지금까지 여러 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현 대표이사를 폭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평택시 송탄 출장소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여도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양비론을 일삼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에바다 농아원 정문이 폐쇄되고 외부세력이 불법적으로 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합법적인 이사회의 퇴거 요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시설이자 학교인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는 무법천지로 변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학생과 농아원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농아원생들과 외부세력의 무단 점거에 의해서 수업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

니다. 지난해에도 이들의 불법행위는 교장실을 두 번이나 심각하게 파손하였으며, 파손된 교장실에 오몰마져 뿌려버렸습니다. 학교는 구 재단 측의 이해관계를 담은 일방적인 이사회 비난문구로 가득합니다. 더구나 농아원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지척인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교사들이 농아원생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정문 앞에서 출입을 봉쇄당하거나, 교실에서 끌려나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형식적인 수업밖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6년여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학교를 떠나 멀리 서울로 전학 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폭력을 근절하지 않음으로 대다수의 학생과 농아원생들이 당하는 고통과 피해는 금전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어느새 폭력에 물들어가고 있으며, 학교는 이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월 9일 대표이사 등의 이사와 시설장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아울러 폭력사태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폭력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법이 힘을 빌고자 요청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이사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법원의 결정문을 게시하기 위해 법원 직원들이 에바다 학교에 찾아가 결정문을 게시하였으나 불법점거 세력에 의해 곧 훼손되었습니다. 에바다를 무단 점거한 농아원생들과 외부세력은 곧바로 권오일 교사와 남정수 이사회 임시사무국장을 폭행하여 각각 전치 6주씩의 진단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다시 평택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조치 무시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는 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에바다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평택경찰서장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평택경찰서장과 평택의 경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에바다를 무단 점거한 세력들의 퇴거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세 차레나 이사진들과 시설장들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시설에 출입하려 했으나, 경찰은 폭행사건만 막으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시설에 진입하려는 이사진들을 격리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경찰의 태도는 결국은 에바다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세력의 편에서 있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일련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사회와 단체들이 고소, 고발을 해도 농아원측의 맞고소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곁에 드러난 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들의 배후마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경찰이, 그동안 평택공대위나 학생대책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없어도 인지수사로 구속을 남발하던 경찰이 고소한 사실마저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찰의 태도가 평택시청의 양비론, 경기도 교육청의 기회주의적 태도와 더불어 에바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능한 경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택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경찰이 더 이상 욕을 듣지 않도록 경찰청장은 평택경찰서장에 대한 지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에바다 폭력 사태의 주범들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2. 에바다 폭력 사태의 배후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어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3. 에바다 폭력 사태 방치하는 평택 경찰서장 파면해야 합니다.
4. 경찰은 에바다 농아원을 불법 점거하고 하고 있는 외부세력을 당장 퇴거시켜야 합니다.
5. 경찰은 법원의 결정대로 출입금지자들의 농아원 출입을 봉쇄하고, 이사회가 업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002년 3월 6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자료 3>

수 사 촉 구 서

촉구인: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용한 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찬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단병호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촉구 단체: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제 인권·시민사회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기독교사회시민연대/노동장애인야간학교/다큐인/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복지연대/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서울장애인연맹/실천불교전국승가회/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주평화통일협의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바다문제해결과장애민중연대를위한제6기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

원노동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한국농아인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민족음악인협회

위 대리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전화: 02-3675-536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귀중

수 사 촉 구 서

수사촉구 취지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에바다연대회의)는 지난 1998년 결성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에바다연대회의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인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재단비리 척결 농성투쟁을 지원하고, 에바다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에바다연대회의는 지난 2월 28일 에바다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농아원생들에 의한 권오일 교사 등의 폭행 사태는 이전부터 자행되어온 일련의 폭력사태의 연장선 속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농아원생들을 불모로 잡고 농아원을 이용하여 사리를 채워왔던 구 재단 측 인사들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폭력으로 내몰아왔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이런 폭력사태는 경찰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나서서 폭행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들이 게시한 가처분결정문을 고의로 훼손함으로써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범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그 배후 세력까지 발본 색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사 촉구 이유

지난해 8월 에바다복지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의 대표이사과 이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동기 절차를 지난해 9월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윤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7명의 공익이사들

은 모두 합법적인 자격을 갖는 이사들입니다.

그렇지만, 구 재단측은 이런 이사회를 부정하고, 이사회에 장기간 불참하고 있으며, 양봉애 전 에바다농아원장 직무대행 겸 에바다학교 행정실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농아원을 현재 이사회에 저항하는 근거지로 삼아왔습니다. 그에 따라 농아원생들과 직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 3개월 전부터 사실상 정문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시설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이사로 선임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신입이사들이나 지난 1월초 농아원장으로 선임된 변승일 농아원장은 시설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김지원 교장을 비롯한 에바다학교의 절반의 교사들이 이들에 의해 학교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마저도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아원생들은 양봉애를 비롯한 구 재단측 인사들은 철저히 농아원생들과 외부세력의 등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정하면서 어린 농아원생들을 폭력을 일삼는 폭력의 주구로 오래 전부터 전략시켰습니다. 농아원생들은 장애 특성상 외부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받기 어려우며, 그런 이유로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일방적인 정보만으로 이사들과 일부 교사들을 적대시하여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양봉애씨가 확실히 부리는 직원들의 강압에 의해서 하기 싫은 행위라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행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두차례의 교장실 파손사건 등은 강제로 해고된 양경수등의 직원이 농아원생들을 내몰아서 자행한 것임이 농아원생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들의 폭력행위는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양봉애씨를 해고한 이사회에 대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봉애씨는 지금껏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농아원생들의 폭력행위는 바로 양봉애씨의 거취가 위협을 받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7일, 10일, 14일 대표이사과 이사들, 신입농아원장, 학교장 등이 시설에 들어가려 하였을 때 정문을 봉쇄하고 윤귀성 대표이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를 하여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8일에는 송탄출장소에서 이사회와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양봉애씨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송탄출장소 앞에서 집회를 하던 도중 출장소 2층에 난입하여 다시 윤귀성 이사장을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의 제지로 1층으로 밀려난 뒤 출장소의 기물을 파손하였습

니다. 그런 뒤에도 차를 타고 떠나려는 징계위원들을 폭행하고, 차를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월 25,6일에는 수원의 다산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철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경찰을 폭행하였고, 유리창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때마다 이사회는 폭행 가담자들을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 고발 조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평택경찰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이들에게 가시적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세력들을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사들을 막아낸 것도 경찰입니다. 이는 이 나라의 공권력이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설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과 이사들, 시설장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불법적으로 3개월 이상 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불법세력들은 비호하고 있는 것이 평택경찰의 행태입니다. 이런 그들이 일련의 폭력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리가 없습니다.

2월 28일의 폭력행위는 바로 이와 같은 경찰의 미온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농아원생들과 농아원생들을 배후 조종하는 세력들에게 승리감만 고취시켜 준 결과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월 28일 오후 4시경 수원지법 평택지원 직원들이 가처분 결정문(업무방해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공시하기 위해 에바다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여 결정문을 게시하자마자 이를 훼손하였고, 곧 이어 주변에 있던 권오일 교사와 남정수 이사회 임시사무국장에게 20여명이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훼손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일 것이지만,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폭행한 이들은 학생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일 것입니다. 이들의 폭행에 의해 권오일 교사는 코뼈가 주저앉고, 다리뼈에 골절상을 당해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안중의 신라정형외과에 입원 치료중이며, 남정수씨도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폭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4일 개학일에 맞추어 학교에 들어가려던 김지원 교장들 교사 8명에게 다시 폭행을 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은 폭행을 당했다면서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으며, 평택경찰서는 이를 일반 맞고소 사건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아원생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경찰이나 교사에게 폭행을 가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자 더더욱 폭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폭력과 불법점거로 말미암아 다수의 학생과 교사들이 입고 있는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에바다연대회의는 폭력행위에 앞장서는 농아원생들과 외부세력보다도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폭력으로 내모는 배후입니다. 양봉애씨는 법적으로 이미 해임된 상황이고, 양경수 등의 직원은 해임되고, 출입금지 결정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아원생들의 배후에 숨어서 이들의 폭력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배후 세력은 말 못하는 농아원생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독점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아원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조차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농아원생들은 구 비리재단 측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강압적인 구조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불쌍한 농아원생들을 그 폭력의 구조로부터 끌어내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들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 사회의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에바다는 정상화되어야 하며, 지금껏 이를 위해 싸워온 이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한 이들의 일부를 다수 학생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그들을 배후 조종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해 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껏 평택시청과 경찰서, 경기도 교육청이 보여온 잘못된 태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찰의 분투와 각성을 촉구합니다.

2002년 3월 6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